

“우리만의 느낌 살린 ‘개다리춤’...안무 이름 잘 지어주세요”



그룹 EXID가 '복고' 스타일로 돌아왔다. 2일 뉴잭스윙 장르의 '내일해'를 발표한 EXID는 복고 콘셉트에 맞춰 버거지모자와 통 넓은 힙합바지, 헐렁한 티셔츠 등 그동안 볼 수 없는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역주행 아이콘, 이젠 복고로 역주행
 신곡 '내일해'로 5개월 만에 돌아온

EXID

TV·잡지로 접한 복고로 '추억 소환'
 팬들이 지어주는 춤이름, 벌써 궁금
 솔지 언니가 춤이 왔다고해 더 기대
 1위 공약? 청순한 모습 보여줄게요



'섹시 아이콘'으로 불리는 EXID의 새로운 모습이다.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타이탄한 옷을 입고 팔뚝을 흔들며 섹시한 춤을 추던 이들이 '90년대 감성'으로 돌아왔다. 5개월 만에 신곡 '내일해'를 들고 돌아온 EXID는 '복고'라는 콘셉트에 맞춰 버거지모자, 통 넓은 힙합바지, 헐렁한 티셔츠 등 그동안 볼 수 없는 이미지로 변신을 시도했다.

LEO, 정화, 하니, 혜린 등 네 명의 멤버들은 "처음 시도해보는 장르고, 스타일이라 걱정도 된다"고 했지만, 제 옷을 입은 듯 전혀 어색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변신의 귀재'답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 메사홀에서 열린 컴백 쇼케이스에서 이들은 "그동안 섹시함을 기반으로 한 노래를 선보였는데, 이번에 달라진 우리 노래와 스타일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가장 궁금하다"고 말했다.

'내일해'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유행했던 뉴잭스윙 장르의 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듀스가 분위기를 몰고와 '나를 돌아봐' '글레를 벗어나' 등과 같은 히트곡

을 만들어냈다.

흥미로운 사실은 네 멤버들이 1990년대 출생이라는 점이다. 90년대 태어난 이들이 90년대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다. 당시 고작해야 6~7살이던 이들이 그때 분위기를 기억할까. 멤버들은 드라마, 영화, 잡지 등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어릴 때 집에 전축이 있었다. 엄마가 당시 인기 있던 곡을 자주 들려줬다. 이번에 '복고' 콘셉트에 도전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추억 소환'과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가 생각보다 어리지 않다. 하하하! 다들 어릴 때부터 TV에서 당시 스타일을 보고 자란 덕에 분위기 정도는 낼 수 있었다."

90년대 느낌이 물씬 나는 의상은 멤버들 모두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를 반영한 춤에서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일명 '개다리춤'이나 '토끼춤'을 포인트 춤으로 넣었다. 몸에 익숙하지 않은 춤 동작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웠다.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다. 90년대에는 지금처럼 칼 군무가

아니라 느낌이 좋다면 될 것 같아 느낌을 충분히 살렸다. 항상 팬들이 포인트 춤 이름을 정해줬는데 이번엔 어떤 이름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다."

EXID의 변신은 여러 모로 의미가 많다.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를 받아온 멤버 솔지가 1월 초 안와감압술을 받아 이번 활동에도 빠지게 된다. 팀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이로 인해 메인보컬의 부재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동안 고수했던 섹시 이미지를 탈피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예전부터 복고 이미지에 도전하고 싶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 이미지상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콘셉트였다. 팬들이나 대중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 이번에도 또 섹시한 이미지를 선보일지 고민이 됐지만, 때때로 복고에 맞는 곡이 나와서 이때다 싶었다."

솔지는 이번 음반에 안타깝게 합류가 불발됐지만, 수술 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 음반에서는 합류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에 같이 나올 수 있었는데 녹음 시기와

회복 중인 시기가 맞지 않았다. 충분히 건강이 회복한 후에 완전체로 활동한다면 더 의미가 클 것 같다. (솔지)언니가 우리들 가운데 가장 춤이 좋다. '위아래'나 '덜덜덜'도 언니가 먼저 듣고 '내일해'도 들어보더니 '애들이, 춤이 왔다'라는 얘기를 해줘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기대는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내일해'는 그동안 호흡을 맞춰온 프로듀서 신사동호랭이의 곡이다. '위아래' '아예' '하 핑크' 'L.I.E' '낮보다는 밤' '덜덜덜' 등 히트곡이 그의 손에서 나왔고, 최근 모모랜드의 히트곡 '뽀뽀'도 신사동호랭이가 만들었다.

"신사동호랭이는 '복고의 신'이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인 것 같다. 그래서 기대가 더 크다. '덜덜덜'까지 6연속 1위를 차지하니 '내일해'까지 욕심이 생긴다. 저희끼리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만약에 1위를 한다면 단체로 청순한 모드로 노래를 부르는 건 어떨까 한다. 우리 이미지와 정반대라 웃길 것 같다. 꼭 1위를 해서 공약을 지키고 싶다." 이경진 기자 ann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영화 '어벤져스3' 배우들 12일 내한

마블스튜디오의 영화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주연배우들이 한국을 찾는다. 영화 개봉에 맞춰 내한하는 이번 프로모션은 역대 최강 규모라 할 만하다.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는 마블의 대표 시리즈 '어벤져스'의 3번째 이야기. 25일 개봉을 앞두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주인공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톰 히들스턴, 톰 홀랜드, 폼 클레멘티에프가 12일 내한해 기자회견과 레드카펫 등 프로모션을 벌인다. 특히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국내서 두터운 팬덤을 가진 영국 배우. 드라마 '셜록' 시리즈를 비롯해 마블의 또 다른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함께 오는 톰 홀랜드는 지난해 개봉한 '스파이더맨:홈 커밍'의 주인공으로, 1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는다.

MBC, '블랙리스트' 작성 드러나

MBC가 카메라 기자와 아나운서 직종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MBC는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와 검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월8일부터 3월22일까지 전 경영진의 블랙리스트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아나운서 블랙리스트의 경우 '강성', '약강성', '친회사적' 등 3개 등급으로 성향을 분석해 문건을 작성했고 실제 이를 반영해 인사발령이나 업무 배제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10월에는 78명의 명단을 담은 '방송대상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MBC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관련자 2명과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조사

2009년 여러 의혹과 논란을 몰고 왔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일 장자연 성접대 의혹 등 5건에 대해 검찰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09년 3월 당시 신인 연기자였던 장자연은 유력 언론사 대표와 기업 임원, 연예 관계자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술 접대 등 부당한 요구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문건에 등장한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불구속 기소되면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워너원, 10개국 13개 도시 월드투어

그룹 워너원이 데뷔 8개월 만에 첫 월드투어에 나선다. 이들은 2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월드투어 콘서트 '워너원 월드투어 원:더 월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워너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미국 산호세와 댈러스, 시카고, 애틀랜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콩, 태국 방콕, 호주 멜버른,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무대를 펼친다. 모두 10개국 13개 도시에서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워너원은 3월 내놓은 두 번째 미니앨범 '0+1=1(아이 프로미스 유)' 활동을 마친 후 해외로 날아갈 전망이다. 워너원은 이와 함께 지구와 멤버들의 모습, 공연을 펼칠 도시명을 적은 포스터를 공개해 눈길을 모았다.

중, 동방신기 생방송 1000만명 봤다

그룹 동방신기가 중국에서 진기록을 세웠다. 이들은 3월29일 중국 웨이보 생방송 '아이워킹취셔우'(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세요)를 진행해 실시간 시청자수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제작진은 이 같은 사실을 2일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동시에 팬들의 접속이 폭주해 관련 서버가 세 번이나 다운되기도 했다. 동방신기가 현지에서 얻고 있는 인기의 힘을 드러낸다. 동방신기는 이날 생방송에서 과거 맞보기, 노래 맞추기 등 주제로 현지 팬들과 소통했다. 이 같은 힘으로 이들은 생방송이 끝난 후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동방신기는 최근 정규 8집 '뉴 챗터 #1:더 챗 오브 러브'로 컴백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